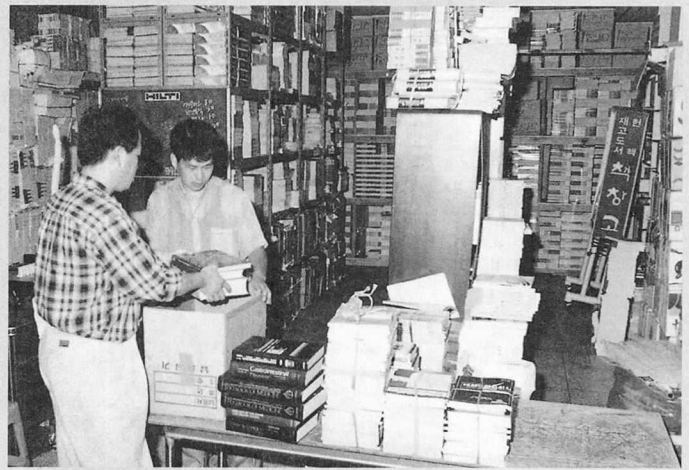


## 매년 재고도서 양산으로 수천억원 낭비

출판계·독자 이익되는 판매방안 찾을 때

출판계가 재고도서 판매방안 모색에 힘을 모으고 있다. 법안을 마련중인 '출판진흥법'에 도서정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할인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독자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재고도서 판매방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다.



한해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가져오는 재고도서의 합리적인 판매방안이 필요하다.  
사진은 재고도서 전문매장 책창고

한 중견 출판사의 재고도서 비율은 30%대. 창고업까지 대행하는 한 유통업체의 재고율 역시 30%대에 이른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통계자료는 없지만, 재고도서율은 평균 30%대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힌다.

시간을 기준으로 98년 한해 동안 양산된 재고도서는 5719만부.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699억원(총발행부수 1억9053만부 × 평균재고율 30% × 평균도서가격 9910원 × 도서제작비 30%). 출판사는 매년 재고도서만큼의 과다제작비, 재고관리비, 물류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 또 종이의 절대량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용지값으로 매년 849억원(평균제작비 50%)의 외화를 낭비하고 덩으로 환경까지 파괴하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추세고 무분별한 출판을 지양해 재고도서는 줄어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유통계의 비과학화와 신간의 생명력

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 절대량이 줄지는 않을 것 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가제가 법제화되면 할인점은 물론 헌책방조차 재고도서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출판계는 결국 재고도서 양산에 들인 비용 모두 포기해야 한다.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하려면 재고도서 판매장치까지 논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조정가격제 도입 등이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다. 즉, 정가제 적용 시점을 넘긴 도서가격을 조정해 판매하자는 것이다. 돌베개출판사 한철희 대표는 "출판계와 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재고도서 판매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가제를 지키는 독일에서도 대학가에는 재고도서 할인판매가 용인된다." 프랑스는 서점에서도 재고도서를 할인 판매하며, 미국 또한 재고도서(구간도서)를 'USED'로 구분해 대폭 할인한다. 정가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재고도서 판매를 모색하면 무단 복사·복제 행위를 줄이는 효과까지 덩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이다.

대형서점의 재고도서 할인판매도 성과는 미미하다. 교보문고 주인길 부장은 "재고도서 할인 판매는 서점과 출판사 모두에게 이익이지만 출판사의 참여 미흡으로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출판사는 아예 폐기처분하기도 한다. 문화유통복스 이영복 상무는 "재고도서 유통을 위한 별도의 체계를 만들더라도 독자에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가제 및 복사·복사 규제의 법제화를 앞두고 재고도서 판매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리를 찾는 일이며 출판계와 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차점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

— 오원진 기자

### 비판적 사회과학과 철학적 인간학

1. 하버마스의 지음/이현아 편역/272면/8,500원

철학적 인간학에 관한 하버마스의 글과 하버마스의 비판 사회 이론을 그 인간학적 기반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한 글들을 모았다. 이 책을 통해 하버마스의 비판 사회 이론이 왜 인간학적 기반에 의존하게 되었는지, 그 인간학적 기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 천리안 phil6161

### 가치론의 역사적 조명

W.H. 베르크마스터 지음/최병환 옮김/640면/26,000원(양장)

윤리학의 분과 학문인 가치론의 주요 내용과 역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브렌타노·마이농·에렌펠스·크라이비히 등 독일과 오스트리아 철학자들의 가치론을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기반 위에서 형성되는가를 명확하고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다.

### 유학—전통과 현대화

蔡方鹿 지음/김봉건 옮김/320면/10,000원

중국 유학의 어제와 오늘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유학의 성격과 역사, 그리고 유학과 정치·철학·교육·문학·종교 등과의 관계를 밝히고, 아울러 유학이 한국과 일본에 끼친 영향을 다루었다. 나아가 오늘날 유학이 현대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토함으로써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